영화 '대가족', 불교 자비로 가족을 보다

[인터뷰] 양우석 영화감독

가족의 '본질' 자비로 해석해
3대 가족의 성장 드라마 담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 찾을 것"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응원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모두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죠."

영화 〈대가족〉의 메가폰을 잡은 양우석 감독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머리를 풀었다.

양 감독은 "'가족'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문제"라며 "이제 우리가 '가족'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야할 때가 온 것 같아 영화 〈대가족〉을 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 〈대가족〉은 '가족'의 본질을 불교의 '자비'로서 풀어낸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즉 함무옥(배우 김윤석)과 무애 스님(함문석, 배우 이승기)의 스토리에서 드러난다. 함무옥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아버지 캐릭터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아들 함문석은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갈등을 계기로 출가해 '무애 스님'이 된다.

함무옥의 가족은 '대를 이을 핏줄'이고, 함문석에게 가족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민국과 민선이라는 출가 전 무애 스님의 '아이'들이 등장하자 상황은 급변한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무옥과 무애 스님은 마음을 나눌 '자비'를 가진 존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후 함무옥은 핏줄을 뛰어넘고, 무애 스님은 가족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한다.

양 감독은 "영화 〈대가족〉은 가족 영화인 동시에 3대 가족이 성장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성장 드라마'기도 하다"며 "특히 부처님을 경전으로만 접한 무애 스님이 자비와 연민을 가진 가족들이야말로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불교적 성장'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대가족〉의 메가폰을 잡은 양우석 감독, 불교의 '자비'로 가족의 본질을 해석해냈다.

영화 〈대가족〉의 제목에서도 가족에 대한 양 감독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양 감독은 "대가족의 '대'는 대할 대(對)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면 모두가 '가족'이 되기도 한다. 그게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법(佛法)의 연기와도 맞닿아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로, '신파'적 요소가 있냐는 우려에 양 감독은 "신파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난다면 그건 영화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생각나서 그런 거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손잡고 와서 영화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 감독은 "영화 〈대가족〉은 어지러운 시국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가족·힐링·코미디 영화"라며 "가족과 함께 극장에 와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우석 감독은 영화 〈변호인〉(2013), 〈강철비〉(2017) 등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선보여왔다. 오는 12월 11일 개봉하는 영화 〈대가족〉은 그의 첫 번째 가족·코미디 영화다.

조계종 성보박물관, 관장회의 정례화

11월 28일, 종로 전법회관서
2025년 주요 사업계획 확정
봉녕사 세주묘엄박물관 승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열린 성보박물관 관장회의와 협회 정기 총회에서 관장회의의 정례화를 결정하고 성보박물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성보박물관 관장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회의에는 수덕사근역성보관장 주경 스님, 불갑사 수다라성보관장 만당 스님,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 월정사성보박물관장 해운 스님, 배영일 마곡사성보박물관장 등 전국 성보박물관 관장과 학예연구사 등 2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관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성보박물관 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성보박물관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재구성, 회칙 개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협회는 권역별 9개 성보박물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재구성하고 사무국은 불교중앙박물관과 수덕사근역성보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봉녕사 세주묘엄박물관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성보박물관 전시 및 학술 활동 지원, 국내 교류 답사 추진, 박람회 참여, 우수 성보박물관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2008년 관장회의 구성 후 2015년 협회로 발족해 매년 회의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는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일대를 답사하며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성보박물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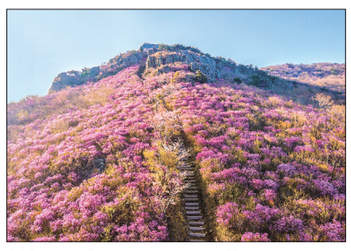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명승 지정

빼어난 산세와 흥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2일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 인근도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있어 높은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내영 기자


영취산 기암괴석과 진달래 군락.

서울·경기·충청 괘불 특징 고찰 학술총서 발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2월 2일
조형적 특징 살핀 심화연구 결과물


'한국 괘불의 미 3, 4'. 사진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이 12월 2일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고찰한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 3: 충청지역'과 '한국 괘불의 미 4: 서울·경기지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각 사찰에 소정된 괘불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사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성보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부터는 그간 조사 결과를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는 심화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그 연구결과를 담은 '한국 괘불의 미' 경상(2022년)과 전라(2023년)지역 편을 발간하고, 심화연구의 마지막 결과물로 충청과 서울·경기지역 편을 발간하게 됐다.

제3편 충청지역에는 사찰에 소장된 국가지정 괘불 15점의 특징과 역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이곳에는 괘불 조성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괘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있다.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이라는 독특한 도상도 충청지역 괘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괘불의 출현과 도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제4편 서울·경기지역에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괘불 6점의 도상 분석, 시주자, 화승, 채색 재료와 기법에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억불숭유 정책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많은 사찰이 철폐됐지만, 왕실 불사는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왕실 발원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준 높은 괘불이 조성됐다. 19세기 이후에는 괘불 조성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근대기 이후의 괘불 양식을 주도했다.

특히 이번 편에는 괘불 심화연구를 마무리하며 괘불의 시주자와 시주 물품, 범자, 문양 등에 관한 고찰을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학술총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도 공개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국가지정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칠성여래도' 국내 반입 중 도난

국가유산청, 12월 3일
누리집에 도난 정보 공고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

사찰 내 칠성각에 봉안됐던 불화로 추정되는 '칠성여래도'가 국내 반입 과정에서 도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3일 개인 소장 '칠성여래도'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이번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이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됐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에 기록돼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 불화는 한국인 구매자가 올해 2월 미국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다. 그러나 운송 과정에서 불화를 배송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했고, 올해 11월 국가유산청에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내영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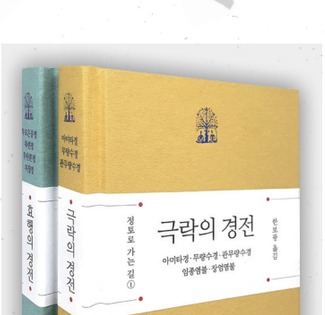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